OPEN ACCESS
10.22936/sh.62..202106.004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소비에트 문제', 혹은 소비에트 연방의 사후의 삶*

박노자**

배새롬*** 옮김

목차

1. 소비에트 세계: 사후의 삶
2. 포스트—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로
3. 정통파들과 비판자들
4. 정통 수호 vs. 근본적 거부
5.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혹은 비시장적 산업주의의 특별한 경우(a special case of non-market industrialism)?
6. 초국가주의적(Super-ètatiste) 사회?
7. 소비에트 타입의 체제들—국가 자본주의보다 멀리 가는가?
8. 결론을 대신하여: 형성 중인(in-the-making) 자본주의와 계급?

* 이 글은 'The Soviet Problem' in Post-Soviet Russian Marxism, or the Afterlife of the USSR, *Historical Materialism*, Brill, 2021(온라인 출판: 2021.6.25.)을 번역한 것이다.

** Full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Studies and Oriental Languages, University of Oslo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www.kci.go.kr

1. 소비에트 세계: 사후의 삶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사회의 사후의 삶은 때로 그것이 예측불가한 만큼이나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주지하듯 노예를 소유했던 고대 로마는, 노예제는 폐지했지만 시민들의 관념적 평등과 시민적 덕에 관해 참고할 것이 필요했던 프랑스 혁명기에 되살려졌다.[1]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고대 과거의 거울에 투사해 보기를 즐겼다는 것이다. 반면 서쪽이든 동쪽이든, 오늘날의 유럽인들은 나이 든 세대의 기억속에 여전히 생생한 최근의 사건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 보인다. 1991년 이래로 살아있지 않게 된 소비에트 연방이 동유럽의 기억의 정치학의 많은 부분을 정의한다고 말하는 것이 큰 과장은 아닐 것이다. 대체로, 발트 3국(에스토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옮긴이) 이나 예전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주류 서사에서, 이 기억의 정치학은 1945년 이후부터 1991년 이전까지의 전체주의적 속박이라 불리운 현상이 시작된 부정적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 어떠한 중요한 사회 정치적 이슈에서도, "소비에트 전체주의"는 편리한 희생양이다. 1991년 이전의 시기에 모든 비난을 떠넘기는 것에 물론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반대하는 것이 몇몇 곳에서는 실제로 불법이다. 비록 많지 않은 경우지만 (특히 헝가리에서) 그러한 금지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의미함에 따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시기의 상징물을 금지한다.[2] 1991년 이전 시기에 관한 더 중립적인 접근은 동유럽과 중부유럽 학계에서 포착되지만 이것이 그곳의 학문적 환경에서 주류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가 지식인 엘리트들의 도움으로 1991년 이전의 과거를 적법한

1 Huet 2007.
2 Holubec 2015.

www.kci.go.kr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서 국민적 단합의 토대를 꾀하는 반면,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최근 역사에 관해 훨씬 더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을 수 있다. 1948년 이후의 체코슬로바키아 집권당의 뒤를 이으면서 이름에 '공산주의'를 반항적으로 포함하는 한 정당(보헤미아 모라바 공산당－옮긴이)은,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의 잦은 (공산주의의 언급과 재현의－옮긴이) 금지 시도에도 1990년과 2013년의 의회 선거에서 10~14%를 획득했다. 이 정당의 '공산주의적' 이름은 대체로 가난에 처한 연금 생활자들이나 빠르게 탈산업화되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들인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듯하다.[3] 그러나 시민 중 비특권계층이 무엇을 생각하든, 소비에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에 기반을 둔 동유럽 엘리트의 민족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적 단합 전략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상황은 다르다. 러시아도 1990년대에 소비에트 시절의 과거와 힘겹게 씨름하는 시기를 거쳐야 했다. 새로운 지배 엘리트들이 소비에트 시절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덧칠함으로써 소비에트의 유산을 조각내려는 시도는 당시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의 열정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기꺼이 1950년대 미국의 냉전 반공 자유주의를 전용했고, 1917년 이전의 과거('우리가 잃어버린 러시아')를 미화하는 동시에 소비에트의 '전체주의적 유산'에 대항해 기억의 전쟁을 벌였다.[4]

그런데 2000년대 초기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 즈음에 이르러서 소비에트의 전리품들은 다양한 벼락 부자들 사이에 나뉘어졌고, 이에 따라 새로운 체제－소비에트 비밀경찰의 베테랑이 최상위에 자리한－는 전리품 중 일부를 계속해서 다시 분할하여 발생기에 있던 부르주아와 지역 엘리트를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의 질서 하로 복속시키고, 소비에트의 지정학적 위엄을 적어도 외양적으로 회복하려고 했다.[5] 이는 동시

3 Kyloušek and Pink 2007.

4 Malinova 2009.

www.kci.go.kr

대 헝가리와 유사성을 보이는데, 헝가리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G. M. 타마스(Gáspár Miklós Tamás, 1948년 출생)에 의하면 동시대 헝가리 오르반 체제의 특징은 전간기 중부 혹은 남부 유럽(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에 있던 우익 조합주의 체제들의 유산을 이용하여 '포스트' 혹은 '유사-파시스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6] 하지만 심각한 차이점은 러시아가 차르와 소비에트, 특히 소비에트의 유산에 의존하며 자본 축적의 세계 체제적 핵심적 중심으로부터 지정학적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푸틴과, 대부분이 이전에 소비에트 정보 요원이었던 그의 패거리는 소비에트 시절의 유산과 관련이 깊다. 게다가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대중적 정서는 안티-소비에트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소비에트 노스탤지어는 참으로 강했고,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새로운 하층계급 사이에서도 이 노스탤지어가 자라고 있었지만 1991년 이후로의 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비에트의 기억은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7] 러시아의 대중적 민족주의에서 대부분 그 충성의 중심은 소비에트 국가였으며, 냉전으로 대립하던 동안의 소비에트적 태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을 주장하는, 일종의 반서구적 민족주의가 2014년 이래로 증가해 왔다.[8] 결국 푸틴 체제의 관료적 통합은 훨씬 더 다양한 요소가 섞인, 민족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택하는데, 이 이데올로기에는 차르국이었을 당시 러시아의 광휘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에트의 공업과 군사적 성취에 대한 긍정이 섞여 있다. 1917년의 혁명과 1920년대, 스탈린 이전의 사회-정치적 급진주의는 로마노프 왕조에서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적 연속성과 근대화로 인한 영광, 자부심 가

5 Chris Harman은 1991년에 동유럽이 자본주의적 세계 체제에 통합된 이후에도 경제에 국가의 개입 조치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 예언했다. Harman, 1991.

6 Riguera 2015.

7 White 2010.

8 Kalinina and Menke 2016.

www.kci.go.kr

득한 서사를 스쳐갈 뿐이고, 이는 종종 1917년 이전의 러시아 사회에 존재했던 계급 갈등의 슬프지만 피할 수 없었던 결과로 그 의미가 축소된 채 간단히 설명되어 버리고 만다.[9] 혁명이 스탈린주의에 길을 내준 것은 이제 혁명의 단점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보였다.

러시아 국가는 확실히 그 자신의 과거 서사를 대중에게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포스트-소비에트 사회는 그 다원주의가 제한적이고 통제되는 것일지라도 다원주의적인 사회이다. 이는 틈새, 즉 주류가 아닌 과거의 서사가 지속적으로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통제되지 않는 정치적 대항(對抗)은 주변화 되어있지만, 공공의 영역, 특히 학문적, 예술적 세계에는 체제가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서사를 위한 약간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10] 이 다른 서사들은 국가 버전의 역사에 등장하는 담론 중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지식인 공동체의 자유주의자들은 1917년 10월의 사건들과 그 이후의 일들이 유감스럽다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지만 국가가 스탈린주의적 성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11] 이 글의 주요 논의 주제인 비판적이며, 비스탈린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에트 시기가 막대한 비용을 치렀다는 것에 동의하는 듯하다. 동시에 상당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근대화를 따라 잡으려던 시기의 절정을 대표한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1917년 혁명과 이후 10년 동안의 급진주의를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또한 소비

9 Sherlock 2016.

10 예를 들면, 젊은 세대의 좌파 아방가르드 시인들, 그루지야-러시아 시인이자 학자인 케티 추크로프(Keti Chukrov, 1970년생)은 소비에트 유산의 군사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인 파토스에 관해 공식적 해석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이들의 예술적인 활동들은 점점 더 억압적으로 변하는 러시아 국가에 의해 용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Bozovic 2019.

11 Chebankova 2014.

www.kci.go.kr

에트의 근대화 드라이브를 20세기 세계체제론의 그림 속에 집어넣어 이를 주변부 내지 반주변부적 발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소비에트 연방 사후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관한 논의를 더 이어가기 전에, 동시대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몇 마디 말을 더해야 할 것 같다.

2. 포스트－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로

소비에트 국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즉 철저하게 도그마화되고,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그들이 카우츠키의 교리를,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는 데 맞춤이 되도록 해석한 것을, 공식적 독트린으로 여겼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덜 알려진 것은 소비에트 체제의 대항자들 대부분 역시 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것이다.[12] 반공산주의적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솔제니친) 혹은 친서방적 자유주의자들(사하로프)은 모두 서방에서 상(노벨상)과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회의 지배 계층인 **노멘클라투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매우 영향력 있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신마르크스주의적 역사가인 미하일 보슬렌스키(Mikhail Voslensky, 1920-1997, 1970년부터는 서독)였다.[13] 보슬렌스키의 분명

12 소비에트 시절 반체제 인사들의 엄선된 글로는 Meerson-Aksenov와 Shragin 1977을 참고하라.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소비에트 현실의 대중적 비판의 형태로서 친마오주의의 민중적 부상에 관해서는 Smith 2017, pp.12~35를 보라. 소비에트 연방의 민중적 마오주의 집단들의 저널리즘적 묘사에 관해서는 Volynets 2013을 보라.

13 강경하게 반공산주의적이었던 망명자 매체인 *Posev*와의 1984년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유래한 언어를 현실 정치에서의 우익적 입장과 결합했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용어를 빌려와 **노멘클라투라**의 특징을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잉여 가치를 추출하는 착취적 계급'이라고 설명하며, 그는 다소 과장된

www.kci.go.kr

한 영감의 원천은 밀로반 질라스(Milovan Đilas, 1911~1995)와 '새로운 계급'에 관한, 결국 스탈린주의적 실천들에 대한 좌파의 비판에 광범위하게 기초한 질라스의 생각이었다.[14] 마르크스주의적 반체제 인사들은 그들의 견해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형기를 보내는 것으로 값을 치렀다. 이를 테면, 명성 있는 베트남 역사 전문가이자 1958년부터 1963년까지 정치범이었던 마라트 체쉬코프(Marat Cheshkov, 1932~2016)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했다. 체쉬코프는 사실 소비에트 국가-관료적 경제 소유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산업의 시대에 다시 탄생한 것으로 이해하려 시도하며 이 측면에서 보슬렌스키를 앞섰다.[15] 반체제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시도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경직된 관료제와 그것의 화석화된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들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해 있으며, 용감한 저항자로서 도덕적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들 중 일부, 특히 저서 『생각하는 갈대』[16]로 1988년 도이처 기념상[17]을 수상한 보리스 카갈리츠키(Boris Kagarlitsky, 1958년생)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적어도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러므로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가 이전의 성직자와 같은 지위를 잃었을 때, 다시 태어난 시장자본주의적 러시아에서, 예전의 좌파적 반체제 인사들이 가장 눈에 띄는 마르크스주의적 목소리를 냈던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

방식으로 서유럽을 향한 '소비에트의 전체주의적 팽창주의의 위험'을 강조했다. Voslensky 1984.

14 소비에트의 노멘클라투라에 관한 그의 중요한 연구는 독일어로 처음 출판되었다: Voslensky 1980. 첫 번째 영역본은 1984년에 나왔다.: Voslensky 1984a, 1984b. 소비에트에서 처음 책의 형태로 출간된 것은 1991년에 나왔다.: Voslensky 1991.

15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관한 논의들을 요약하려는 체쉬코프의 시도에 관해서는 Cheshkov 1994.

16 Kagarlitsky 1988.

17 https://ww.deutscherprize.org.uk/wp/past-recepients/(2019.11.20 접속).

www.kci.go.kr

재의 관료 통합적 체제에서, 비스탈린주의적 좌파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류 대중적 정치에서 무시해도 될 만한 힘이다(여기서 '좌파'의 틈새는 러시아 연방의 신스탈린주의적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할 것이다). 그러나 비스탈린주의적 좌파는 적어도 지식인 공동체 내에서 자리 잡은 틈새에 더해, 교육 받고 불만을 품은 젊은 층 일부를 끌어당기는 경향을 보인다. 특권 없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자신의 계급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도시의 교육 받은 젊은이들을 체제의, 적어도 체제의 몇몇 영역에서 소외되도록 함에 따라 비스탈린주의적 좌파의 세력은 앞으로 다소 증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18]

당연히, 이전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가 성직자처럼 높았던 지위를 잃었다는 사실이 그것의 구성원들이 꼭 사라졌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았다. 일종의 변증법적 방식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는 어떤 소비에트적 관습을 부인하는 것 만큼이나 소비에트의 관료적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과학아카데미와 연계된 기관들의 낡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19] 그들 중 몇몇은 원래 갖고 있던 교리적 기반에 대한 충성을 유지했다. 이는 물론 필요한 변화가 일어난 이후*(mutas mutandis)*였다. 이를 테면 소비에트의 몰락을 고려할 때, 소비에트 연방을 계속 '발전한 사회주의적 사회'로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래에서 보게 되듯, 이 학파의 대표자들은 소비에트의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는 시작부터 불완전했다고 하거나, 소비에트 연방이 장기간의 '쇠퇴'를 거치며 결국 (유감스러운) 종말로 이어졌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권좌에서 쫓겨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성직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성향은 예전이나 지금이

18 Mikhailin 2013; Tarasov 2007.

19 이들 중 다수가 '정치학자(political scientists)'로 재분류되었다. Naumova 2008.

www.kci.go.kr

나 이 몰락의 책임 중 상당한 비율을 소비에트 시스템에 반(反)하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전쟁'으로 돌리는 것이다. 2014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옮긴이) 지정학적 긴장이 급증하며 이러한 견해는 스탈린주의적 지식인 게토 밖에서도 더 강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주류 담론장에서 애국심은 적법성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이 필요조건은 학계의 남아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과 레온 트로츠키(1879~1940)와 1920년대, 1930년대의 좌파 반대파(Left Opposition: 1923년에서 1927년까지 러시아 공산당 내 존재한 하나의 분파로 사실상 레온 트로츠키가 이끌었다－옮긴이)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의 자랑스러운 상속자들인, 예전의 마르크스주의적 반체제 인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20]

3. 정통파들과 비판자들

당연히, 종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순수함을 전문적으로 지키는 이들과 예전에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반체제인사들을 나누는 것은 거칠고 불완전한 일이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자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의 현실, 그리고 신마르크스주의자의 환경은 훨씬 더 다양해졌고, 어떤 면에서는 '잡종적'인 풍경을 보인다. 예를 들어 소비에트 공산당의 마지막 중앙위원회(1990~ 1991)의 위원이었으며 현재 모스크바 국립대학 경제학부의 경제이론과 정치경제학의 학과장인 알렉산더 부즈갈린(Alexander Buzgalin, 1954)과 같은 경계선적인 경우들도 있다. 그는 1960~80년대의 정통적 '마르크스－레닌

20 러시아 국가의 애국심에 관해서는 Chebankova 2017.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 중 한 명인 보리스 카갈리츠키도 러시아 국가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합병한 것에 순응적이었다. Desai, Freeman, and Kagarlitsky 2916.

www.kci.go.kr

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제도적인 상속자이지만, 그의 견해는 반체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과 훨씬 더 가깝다.[21] 모스크바 국립 대학의, 부즈갈린의 많은 선배와 스승들 역시도 겉보기에는 무해하게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적 텍스트를 연구하며 소비에트의 현실을 남모르게 문제화할 수 있었다. 이를 테면 모스크바 국립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의 권위자인 블라디미르 슈크레도프(Vladimir Shkredov, 1925~1996)는 그의 "자본론" 분석을 통해 범주로서의 '재산관계의 형태'를 정의하는 것은 법적 규범 자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생산력'의 발달 정도라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임을 증명했다. 이는 법에 의한 소비에트 국가의 생산 시설 소유 그 자체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실질적 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었다.[22]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에 공공연히 체제에 반대하는 것과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도그마에 비밀스럽게 의문을 갖는 것의 경계는 다소 흐려졌었다. 그랬던 반면, 자신을 스스로 마르크스주의자로 보는 이들이나 마르스크주의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소비에트 연구자들은 여전히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통**' 진영과 '**비판적**' 진영으로 나뉠 수도 있다. 전자의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최종적으로는 부패하는 경향이 있었는가와 상관없이, 소비에트가 적어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이었음을 인정한다. 후자는 사회주의에 관한 소비에트의 주장을 강한 의심의 눈길로 본다. 놀랄 것도 없이, 비판자들이 자신의 이력 중 소비에트의 감옥이나 정신병원(반체제인사들을 구금하는 데에 드물지 않게 쓰인)에서 보낸 형기를 이력서에 종종 자랑하는 반면, 정통파에 속한 이들은 소비에트 시기의 주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관계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소비에트 연방을 (국가) 자본주의 사회, 또는 '타락한' 노동자들의 국가, 그도 아니

21 부즈갈린의 생애와 작업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Oititine 2010에서 볼 수 있다.
22 Shkredov 1973, p.106.

www.kci.go.kr

라면 새로운 사회적 형식으로 보던 서방의 비스탈린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를 둘러싼 상황과 비슷하게[23], 포스트－소비에트 '비판자'들은 아래와 같이 더 나뉠 수 있다:

－'**근본적 거부주의자**(fundamental rejectionist)': 1917년 10월 혁명 자체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의문을 가지며, '러시아의 사건들'에 대한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의 유명한 회의주의와[24] 인도계 캐나다인이며 영향력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인 파레쉬 차토패드히야(Paresh Chattopadhyay)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 차토패드히야는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이 1917년의 대중적, 혁명적 민주주의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폭력이었다고 주장한다.[25] 미하일 보슬렌스키와 그의 지적 후계자들 일부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테르미도르 학파**(Thermidorian School)': 적어도 소비에트 초기를 사회주의적 발전, 혹은 최소한 비자본주의적 방향의 발전이 일어나거나 적어도 시도된 적이 있는 시기라고 간주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에트 초기란 대체로 1920년대 후반까지를 말한다. (종종 언급되는 때는 1927년으로, 소비에트 연방에서 좌파 반대파(Left Opposition)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해이다)[26] '정통' 진영과의 중요한 차이는 주장의 강도에 있다. '정통'파의 논객들은 그 사회주의에 얼마나 결함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소비에트 시기 전체 또는 그 시기 중 다양한 부분들

23 Haynes 2002.

24 Kautsky 1919, pp.172~238.

25 차토패드히야는 1980년대에는 1917년 10월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믿었지만 1990년대에 거부주의자로 입장을 바꾼다; Chattopadhyay 2004; linden 2007; pp. 267~269.

26 1927년 이후에는 트로츠키주의 출판물들(The Bulletin of Opposition 등)이 남아 있는 좌파 반대파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 Nove 1977.

www.kci.go.kr

을 사회주의적이었다고 간주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테르미도르 학파는 사회주의적 미래를 향해 "시도된 운동"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아마도 테르미도르 학파는 근본적 거부주의자들과 그들이 가진 믿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믿음이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17년 러시아에서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이후(oist-capitalism)가 이론적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요점이 잘 드러난 것으로는 동독의 반체제적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포스트-소비에트의 테르미도르학파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많은 영감의 원천 중 하나였던 루돌프 바로(Rudolf Bahro, 1935~1997)의 연구가 있다: 그는 1960년대 후반에 그가 동구권에서 관찰한 시스템을, 관료화된 집권당이 권력을 찬탈한, 원형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했다.[27] '원형적 사회주의(Proto-socialism)'는 이제 아주 낡은 용어이지만, 테르미도르 학파의 논리와, 바로와 같은 경우로 대표되는 더 오래된 동유럽의 반체제적 사상 지형의 기저에 연속성이 실재함은 분명하다.

테르미도르 학파는 다시 두 하위 진영으로 넓게 나뉠 수 있다:

-'**국가 자본주의**(state-capitalist)'학파의 사유는 라야 두나예프스카야(Raya Dunayevskaya, 1910~1987)[28]와 토니 클리프(Tony Cliff, 1917~2000)[29]의 주

27 Bahro, 1978.

28 Dunayevskaya 1992.

29 Cliff 1974. 클리프의 러시아에 관한 생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관해서는 Harman 1990을 보아라. 클리프가 지정학적 경쟁의 상황 하에서의 축적의 조건을, 내재적으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소비에트 시스템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봤다는 점에서 두나예프스카야와 달랐다는 것은 기억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논점-지정학적 경쟁과 무기 소비-은 '영구 무기 경제(permanent arms economy)' 이론가들에 의해 서구 경제와 비교해서도 강조되었다: Kidron 1965, 1970. 클리프와 Kidron 모두를 비판한 것은 Arthur 1968.

www.kci.go.kr

도 아래, 소비에트 연방과 그 위성국가, 그리고 세계 전역의 모방 국가들이 본질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의 전망을 포기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학파는 그 후 관료화된 혁명 이후의 국가(이전의 소비에트 연방과 그것의 위성국가를—옮긴이)가 자본 축적의 유일한 행위자(agent)로 떠오른 자본주의적 국가라고 간주한다. 아비니르 솔로비예프(Avenir Solovyov, 1925~2000)는 이러한 성향의 대표자로, 그는 소비에트와 그 후 시기에 두루 활동했다. 그는 소비에트식 '정통' 마르스크스 레닌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유사(quasi) 클리프 분석 학파로 전향한 바 있다.[30]

—'**특별한 종류의, 혁명 이후의 비자본주의적 사회**(a special sort of post-revolutionary non-capitalist society)'는 여러 탁월한 이론가들이(예: 카갈리츠키, 부즈갈린, 알렉산더 타라소프(Alexander Tarasov, 1958년 생))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려 시도하는 데 사용한 방법이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 불가능한 일이란 자본주의 이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명백히 자본주의를 거부하려 건설된 사회가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가깝도록 나아간 것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된 이론가들은 소비에트를 (국가) 자본주의적이지도, 당연히 원래 의미에서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았다. 소비에트 사회와 같은 경우를 근대적 산업화 역사에서 '특별한 경우'로, 즉 계층화 되었지만 완전히 자본주의적이라고 분류될 수는 없는 사회로 보는 것은 정교하고 창의적인 이론화를 필요로 한다. 이 범주의 이론 대부분은 이론가들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만큼이나, 이론가들의 개별성에 의해서도 선명히 구별된다. 그 예로 이전에 소비에트의 학문적 노멘클라투라의 일원이었던 부즈갈린은 "크게 변화한(mutated)" (이는 명백히 1930년대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들의 국가"론들을 떠올리

30 Solovyev 2010.

www.kci.go.kr

게 한다) 방식이었음에도 소비에트 시스템을 여전히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되는 목적론적 길을 따라가려 했던 사회로 인식한다.[31] 이에 비해 소비에트 시절의 반체제 인사였던 타라소프는 그가 '소비에트의 초국가주의'라고 명명한 것이 사회주의(탈산업화적 사회(post-industrial society))와 어떤 방식으로라도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딱 잘라 거부한다.[32] 이 하위 진영에서의 이론화는 소비에트 타입의 시스템이 가진 성격에 관해 한발 더 나아간 비판적 질문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화는 소비에트에 대한 주류적 관점과 소비에트 사회를 단순히 권위주의적인 산업화 사회, 혹은 그것을 모방하여 그보다 나쁘게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 '전체주의적' 민족국가를 세운 사회로 보는, 클리셰가 되어버린 견해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후자는 '국가 자본주의'론의 여러 종류들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소비에트 문제'에 관해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벌어진 논쟁에서, 세계체제론이 적용된 사례는 아래를 참조). 이는 동시에 소비에트 타입의 사회들의 중요한 몇몇 특징들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 특징들은 약간의 정당화를 거친다면 세계사적 맥락에서 고유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하위진영에서 나온 이론에 관해 아래의 논지에서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이 하위 진영에서 나온 이론에 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고 한다.

4. 정통 수호 vs. 근본적 거부

그러나 먼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의 존재를 수호했던 '**정통**'파

31 Buzgalin and Kolganov 2010, pp.374~400.

32 Tarasov 1996.

www.kci.go.kr

로부터 시작해 다른 진영의 주장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이 진영－어쩌면 학문적으로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은 *Kommunist*라는, 소비에트 공산당의 주된 이론 저널의 편집장이었고(1976~1986), 현재 모스크바 국립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있는 리차드 코솔라포브(Richard Kosolapov, 1930년 생)와 같은 소비에트 시대의 권위자들로 주로 대표된다. 그에 의하면 레닌과 스탈린의 지도 하에 러시아인들은 "사회주의로의 약진"을 이뤘지만, 스탈린 이후의 시기에 점진적인 퇴보가 일어났고, 이 퇴보는 소비에트의 몰락과 그 이후의 포스트－소비에트 사회, 그리고 경제의 탈근대화(demodernization)로 끝이 났다.[33] 후자의 논평이 포스트－소비에트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중 다수에 의해 공유되는 반면, 스탈린주의에 대한 찬사는, 듣기 불편할 만큼 러시아의 자칭 정치적 "좌파" 사이에서는 흔하지만 맑스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초래한다. 결국, 중도 좌파를 자칭하는 러시아의 가장 큰 정당, 즉 러시아 연방 공산당(KPRF)은 당의 성명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가 역사적 현실이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와 동시에 1930~40년대에 유감스럽게 일어난 "사회주의적 합법성에 대한 위반"－1930년대와 1940년대의 대숙청을 완곡히 표현한 것－에 적절한 비판도 가해진다.[34] 그럼에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소비에트 공산당의 후계자들 중 일부의 공공연한 신스탈린주의는 소비에트 시스템의 성격에 관한 '**정통**'파의 견해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른 극단은 '**근본적 거부주의자**'로 대표된다. 소비에트 연방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비전과는 관계없이, 권위주의적 (또는 전체주의적) 동원 사회로 간주하는 이들 중 모두가 마르크스주의자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 학파의 대표자들 몇 명은

33 Kosolapov 2014.

34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성명서는 htttps://kprf.ru/party/program(2019.11.2 접속)

www.kci.go.kr

마르크스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로 여겨지는 것이 역사적 분석의 도구로서만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이전 세대의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자들에게 지적으로 빚을 지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일례로, 보슬렌스키는 공공연히 질라스(그의 주된 저작 중 하나인 『노멘클라투라』 제 2판의 서문을 써준[35](1990))와, 어느 정도까지는 카우츠키(혹은 러시아의 카우츠키안이고 보슬렌스키의 가족의 친구이기도 한 레브 디에치(Lev Deutsch)[36]의 지적 선도를 따랐지만, 그의 비판적 마르크스주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을 "유효한 가정"이라고 보는 반면, 레닌주의는 거부한다. 레닌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새싹이 약간 있던 봉건적 사회의 급진적 지식인 그룹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한 일종의 정당화 기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슬렌스키에 의하면, 이 권력 장악의 결과는 전제적 봉건제로부터 마르크스 자신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보슬렌스키가 "국가－독점 봉건제"라 그 특징을 주장한 형태로 러시아가 후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독점 봉건제"란 소비에트의 공식적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말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아이러니한 말장난이다) 보슬렌스키가 1917년의 사건들에서, 특히 귀족의 재산을 농노들이 몰수한 것과 같은 반봉건적 혁명의 요소를 발견한 것은 틀림없다. 그와 동시에 보슬렌스키는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정책들은－특히 '집단화'는 사실상 1917년에 농노들이 농노 자신들에게 나누어준 국토의 국유화였다－대규모의 반봉건적 반란 이후의 "국가－봉건적 반동"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37] 이와 같은 보슬렌스키의 이론은 보

35 그의 서문은 Voslensky 1990, pp.7~12에서 볼 수 있다.
36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Haimson 1987, p.472의 미주를 참조.
37 Voslensky 1990, pp.593~656.

www.kci.go.kr

슬렌스키의 지적 여정을 공유한 후기 소비에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 소비에트 시기와 포스트－소비에트의 중요한 법학자인 아나톨리 틸레(Anatoly Tille, 1917~2006)는 심지어 『소비에트의 사회주의적 봉건제, 1917~1990』(2005)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책도 썼다.[38] '봉건제'는 동시대 러시아에서 일종의 비유로 쓰인다. 유명한 사회적 자유주의자, 그리고리 야블린스키(Grigory Yavlinsky, 1952년 생)는 러시아의 현 체제를 잔존하는 스탈린주의와 "봉건제와 경계를 맞댄 조잡한 자본주의"의 결합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39] 소비에트 연방이 '(국가) 봉건제'였으므로, 이 학파를 따르는 이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시장 질서로의 이행을 역사적 진보('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을 '국가－봉건제 사회'로 칭하는 것은 정치인들과 전문적 역사학 공동체의 다수에게 문제적이다. 이 정치인들의 유권자는 소비에트 연방을 봉건적 장원 보다는 포괄적 복지 국가와 관련시키고, 역사에서 알려진 봉건 가산국가는, 어쨌든 대량 소비 사회나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이런 특징들의 존재는 후기의 소비에트 연방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5.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혹은 비시장적 산업주의의 특별한 경우(a special case of non-market industrialism)?

소비에트는, 어쨌든 그것과 동시대에 다른 곳에 존재했던 자본주의 국가들과 정말 그렇게 달랐는가? '**국가 자본주의**' 학파의 담론에 의하면

38 Tille 2005.

39 Yavlinsky 2018.

www.kci.go.kr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의 비 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학계에 비교하면 덜 두드러졌지만,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에서 국가 자본주의 학파의 존재는 분명히 감지될 수 있었다.[40] 제 1차 세계 대전의 교전국들의 경제에 국영화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선구적이었던 부하린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1950년대 중후반에 몇몇 마르크스주의적 반체제 인사들(레볼트 피메노프(Revolt Pimenov), 1931~1990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1920년대 초반의 노동자 반대파가 남긴 저항의 유산에 의지하여 소비에트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자본주의적 독점자로 간주하려 했으며 이 계열의 사유는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지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41] 아주 거칠게 말해,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국가 자본주의적' 이론가들은 서로 관계가 없지는 않은, 두 개의 서로 구별되는 지적 전통에 속한다. 첫 번째 것은 본래 소비에트의 교수로서 노동 생산성 발전 역학을 연구하던 아비니르 솔로비예프(Avenir Solovyov)로 잘 대표되며, 보슬렌스키나 틸레와 같은 이들이 그 전형으로 여겨지는 지적 전통과 눈에 띄게 비슷하다. 이 학파는 소비에트 정통파에서 전향한 이들에 의해 옹호되곤 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사회에서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가 눈에 띄게 부재하는 한편 매우 착취적인 단위 당 임금 시스템과 같은 예가 '사회주의적' 수사와 당혹스럽게 공존하는 현실에 낙담했다.[42] 실제로 솔로비예프는 1917년 10월의 일이 거대한 규모의 반봉건제적 반란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그는 또한 볼셰비키 당 기구가 대중적 봉기의 과실들을 재빠르게 전유했다는 것에도

40 Bukharin은 1915년에서 1917년까지 글을 쓰며 국가 자본주의가 미래의 자본주의적 세계에 지배적인 사회적 형태가 되리라고 이미 믿었다. Bukharin 1929, p.158.

41 Ilya Budraitskis의 Dissidenty sredi Dissidentov(Dissidents among the Dissidents). Moscow: Svobodnoe Marksiskskoe Izdatel'stvo, 2017, pp.35~87.

42 1970년대 헝가리 공장의 노동 관리 관습의 참혹한 설명에 관해서는 Haraszti 1977.

www.kci.go.kr

동의한다. 볼셰비키 당 기구는 1920년 초기에 이르러 이미 권력을 독점했고, 193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농노의 땅을 포함해) 거의 독점한 생산 수단을 권력에 더했다. 그러나 보슬렌스키와 달리, 솔로비예프는 점점 더 산업화되었던 경제의 당 관리자들이 "국가 봉건주의자"라고 보지는 않았다. 솔로비예프에 의하면, 당 관리자의 대부분은 (프롤레타리아 보다는) 원래 쁘띠 부르주아로, 당에 들어와서 하나의 독점적이며 초-자본주의적인 것, 즉 소비에트 국가에 고용된 관리자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소비에트 국가는 외국의 내지 개인적 자본가들 대신 나라를 산업화했다.[43] 그런 후 1991년의 붕괴 후에 소비에트 국가는 여러 개의 사유화된 자본주의적 과두제(국가들-옮긴이)들로 쪼개졌다.[44] 마지막 분석에서, (소비에트) 공산당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데에 주된 도구로 쓰였다. 이러한 접근의 논리를 따르자면 소비에트의 붕괴와 시장제도 진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국가 자본주의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발전했고, 그들 자신을 진정한 사적 소유자들로 변형시켰다. 그러나, 이 논리는 또한 소비에트 관료제('국가 자본주의자들')와 현재 러시아 국가를 운영하는 이 관료제의 제도적 후임자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 또한 시사한다. 이 학파의 이와 같은 생각은 더 이른 시기의 (1918년 이후) 소비에트 국가가 잉여를 추출하는 근대화 기계였으며, 1917년의 반자본주의적 반란을 진압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변화하는 여정을 시작했다고 보았던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연구자들의 이론화와 비교할 만하다.[45]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에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46]을 숙지할

43 이 논점은 Harman 1969에서도 강조된다.
44 Solovyev 1998.
45 Camfield 2020.

www.kci.go.kr

수 있었던, 보다 젊은 사상가들이 대표하는 또 다른 지적 전통은 한 단계 비약해 소비에트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독점적 자본주의자로서, 더 큰, 세계 체제적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자 한 덩어리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중 언어 사용자(러시아어, 영어)이며 소비에트와 미국 모두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은 게오르기 덜루기안(Georgi Derluguian, 1961년 생)에 따르면, 근대적 산업주의를 향한 소비에트의 방식은 20세기 반-중심부/반-주변부 국가들이 상승하던 궤도를 대표적으로 예시하는 것이었다. 소비에트 국가는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세르게이 비테(Segei Witte, 1849~ 1915)의 국가-자본주의자의 경로를 밟게 되었지만,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헤게모니 변화에서 비롯된 세계 전역의 혼란 덕에 훨씬 더 급격한 방식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바람은, 중앙집권적 자원 동원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진 소비에트 연방이 여러 개의 주변부적 영지로 붕괴되는 환경을 만들었다.[47]

위에서 간략히 살펴 본 두 버전의 '국가자본주의적' 설명은 스탈린이 한 때 건설했던 (비자유 노동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이나 '소비에트의 국가-봉건제적 후퇴'에 관한 이론보다 훨씬 더 이치에 맞다. 그러나 이 설명은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에 답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내버려 둔다. 독점적-회사로서의-국가가 분명히 자본 축적의 과정을 감독하기는 했지만, 이 국가는 단순히 상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독립체였고,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넘어서는 일련의 목표

46 이마뉴엘 월러스틴의 책이 러시아에 처음 번역되어 나타난 것은 2001년이었고, 보리스 카갈리츠기가 편집을 했다. Wallerstein, 2001. 그 전에 월러스틴은 다소 제한된 숫자의 사회과학, 인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영어 원문으로 읽혔다.

47 Wallerstein and Derluguian 2012. 덜루기안의 견해가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세계체제론의 이론가로서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 서로 다른 여러 지적 전통을 빌려서 사용한다.

www.kci.go.kr

가 있었다. 소비에트의 산업적 공장 중 여러 개가 실제로 사회적인 목적(완전 고용), 그리고 다른 종류의 목표를 위해 손해가 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planovo-ubytochnye predpriyatiya").[48]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재산권을 갖지 못한 노동력과의 사회－정치적 합의의 한 부분으로서, 독점적－회사로서의－국가는 생산의 느릿한 템포 역시 모른 척하고[49] 잉여 가치의 큰 부분을 복지 혜택으로 재분배해야 했다. 이는 동시에 완전 고용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노동자들이 낮은 수준의 일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도 했다(비록 '사회주의적 경쟁'이 관리직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했지만).[50] 자원 배분 결정들을 위해 자본 시장은 관료적인 유사－시장으로 대체되었고[51], 완전 고용의 조건하에 있던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에 의해 선호되었으며,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국가의 아파트 할당 계획의 주변부에서 비공식적으로만 존재했다.[52] 자본 시장이 없고, 경쟁적 노동시장이 없으며, 대부분 국유화된 도시의 주거 부문이 있는 자본주의가 여전히 자본주의인가? **비시장적 산업주의의 특별한 경우**(a special case of non-market industrialism) 학파에 속하는 이론가들의 대답은 엇갈린다. 그렇다, 소비에트 타입의 산업주의는 그것이 자본 축적의 논리로 지배되던 한, 정치적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아주 유명한 트로츠키주의적 반체제인사

48 Zhuravleva 2014, p.331. 동시에 손실을 유발하는, 국유화된 산업들이 1945년 이후의 많은 '고전적' 자본주의적 국가들의 특징이었다는 것도 기억되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예는 영국이다. Baker 1978.

49 Burawoy and Lukacs 1985.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적 경쟁'이란 아이디어에 내재되었던 소비에트화된 테일러리즘(혹은 '돌격 노동(shock work)'과 '스타하노브 운동(Stakhanovite movement)'에 관해서는, 이 선구적인 비평을 참조. Deutscher 1952.

50 Fitzer 1996.

51 자원 배분 결정으로 향하는 협상의, 복잡한 과정으로서 소비에트의 계획을 본 것으로는 Wilhelm 1985.

52 Morton 1980.

www.kci.go.kr

인 페트르 울(Petr Uhl, 1941년 생)이 명명했듯 '전체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독재'체제로 짝지어졌던 만큼, 진정한 포스트－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53]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었다. 국가자본주의적이지도 않았다. 정치가 시장을 거의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 학파의 이론가들은 다양하고, 그들의 설명에는 차이를 만드는 미묘한 여러 특징들이 제시된다. 그들 중 여럿에게 시작점은 트로츠키의 유명한 선언이자 그의 고전작인 『배반당한 혁명: 소비에트 연방이란 무엇이며 이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1936)일 것이고, 이 책은 소비에트 연방의 창시자 중 한명이 적어도 이 책의 집필 당시에는 그것을 '국가자본주의'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소비에트 관료제에 관한 트로츠키의 생각은 내전(1918~1922)과 내전 직후의 시기(그가 이 문제를 대체로 관료제적 기구들의 비효율의 면에서 정의하던 때)부터 그의 마지막 망명시기까지 긴 변화를 겪는다: 1930년대 후반, 그는 소비에트 행정가들을, 혁명적 성취를 테르미도르적으로 전도하는 기생적 계급으로 간주했다.[54] 하지만 트로츠키의 스탈린주의적 적들이 소비에트의 국가적 자산을 (트로츠키가 예언자처럼 짐작했던 바와 같이, 그들 일부는 미래에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 실제 하게 됐다[55]) 사유화하지 않은 이상, 소비에트 연방은 전 국방장관(트로츠키－옮긴이) 눈에 여전히 "타락한 노동자들의 국가"로 남았다.[56] 흥미롭게도, 트로츠키를 1917년 전에 그 일

53 그의 동구권 사회에 관한 견해에 관해서는 Dalberg 2016.

54 Twiss 2014, pp.402~403. 이 책의 리뷰도 참조. Thomas 2018.

55 소비에트, 그리고 포스트－소비에트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Vadim Rogovin (1937~1998)이 트로츠키가 193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의 미래 발전 예측에 관한 연구를 참조. Rogovin 1990.

56 트로츠키는 국유화된 산업이 '노동자들의 국가' 그 자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 국유화가 특히 소비에트의 경우에 혁명적인 성취였던 만큼, 트로츠키는 국가적 소유의 지속이 스탈린주의적 테르미도르(Stalinist Thermidor) 반동

www.kci.go.kr

원으로 두기도 했던 멘셰비키 망명자들도 (소비에트 체제의 비민주적 성격에는 반대했던 반면) 1940년대 초반까지 이를 '역사적으로 진보적'이며 심지어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얼마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생산 시설이 국유화된 채로 남아있으므로).[57] '노동자들의 국가'는 오늘날의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절대 피하려고 할 만한 종류의 언어이다. 노동자들이 **결코** '그들의' 국가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고도화된 스탈린주의에 관한, 피상적인 수준이나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58] "하루 8시간, 일주일에 7일 노동으로의 전환과 공장, 사무실의 육체노동자,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의 허가 받지 않은 이탈 금지에 관하여"라는 법령(1940.6.25)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심지어 일터에 20분만 늦게 나타나도 감옥에 갇힐 수 있었다.[59] 그러나, 스탈린주의자들의 전성기 동안 군사주의 국가의 강한 통제 너머에서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것과, 관습적으로 정의된 '자본주의'(그것이 국가관료주의적 종류의 것일지라도)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알아보기도 한다. 이것이 "비시장적 산업주의의 특별한 경우" 학파의 소비에트 시절 선배 중 한 명이자 비정통적 경제학자인 야코프 크로느로드(Yakov Kronrod, 1912~1984)가 자신의 사회(소비에트 사회-옮긴이)를 "사회적 과두제"라 명명하고, 그가 이것을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어떤 식으

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Thomas 2006.

57 볼셰비키 체제의 성격과 가능성에 관해 서로 다른 멘셰비키 망명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 좌파적 멘셰비키(Yulius Martov(1873~1923)와 이후에는 Fyodor Dan(1871~1947)으로 대표되는)는 1917년의 혁명을 '농노 혁명'으로 보았고, 볼셰비키의 독재적 행동을 '반동적'인 것 그 자체로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1920~30년대 러시아의 '혁명적 과정'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들이 바라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고 믿었다. Kondratieva 1993, pp.179~184.

58 Trotsky 1937, Chapter 9.

59 이 법에 따라 투옥된 노동자의 수에 관해서는 Sokolov 2003, pp.23~42.

www.kci.go.kr

로든 사회주의적인 것으로도, 자본주의적인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이유였다. 소비에트 사회는 불평등하고 착취적이었으나 상부구조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현실에서는 이미 죽은 말이었던) 혁명적 이상으로 주도됐다.[60] 포스트－소비에트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바로 이러한 통찰 위에서 (생각들을－옮긴이)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카갈리츠키는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인 『마르크스주의: 공부를 위해서는 추천하지 않음』(2011)에서 트로츠키의 '소비에트 테르미도르', 즉 보수적인 스탈린주의적 관료제에 관한 생각을 발전시킨다. 관료제는 1920~30년대에 농노들의 토지를 차지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빼앗았고, 도시 프롤레타리아들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아 그들에겐 정치적 영향력 보유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했다. 카갈리츠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국가가 고용한 임노동자에 불과한 한, '노동자들의 국가'는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었다. 동시에 이 노동자들을 고용한 공장들은 이윤 창출을 그들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았는데, 이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정의가 된다. 게다가 카갈리츠키가 보기에, 관습적인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세계와 벌였던 이데올로기 경쟁은 '국가자본주의'의 틀로 접근해서는 완전히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이것은 소비에트가 제 3세계의 해방 운동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에트의 관료들이 단순히 소비에트 연방 주식회사의 보수적인 관리자들에 지나지 않았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 상태status quo의 유지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외부적 동맹을 추구하게 했을까? 카갈리츠키를 따르자면 이 모든 질문에

60 Mandel 2017, pp. 77~126. 또 다른 이단아적 소비에트 철학자이며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오랜 기간 친구였고 편지를 주고받은 Fagim Sadykov(1928~1998)은 소비에트 사회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의 위계적 특징을 주된 '사회주의의 모순'으로 지적했다. Sadykov 1968.

www.kci.go.kr

대한 대답은 소비에트형 시스템의 과도기적 성격에 있다. 포스트 혁명적 개발사업들(산업화 등의)은 사회의 상향적 계급 이동이 더 빨라지게 했다. 질라스적 의미의 '새 계급'이 대자적 계급으로서 진정 단단히 통합되기 까지는 몇 십 년이 걸렸고, 이 일이 끝내 일어났을 때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파멸을 맞았다.[61]

1917년 10월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스템(들) 뿐만 아니라, 1917년 10월의 사회주의적 자격 요건에 관해서, 부즈갈린은 카갈리츠키보다 훨씬 더 관대해 보인다. 카갈리츠키는 (혁명적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적 생각들과 더불어) 1917년의 혁명가들이 사회주의적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동시에 카갈리츠키는 볼셰비키의 포스트 혁명적 급진주의(전시공산주의)를 환경에 의해 강제된,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즉석에서 이뤄진 일련의 조치로 간주한다. 전쟁으로 찢긴 국가에서 도시의 문명이 무너졌을 때에는 오로지 강제만이 효과가 있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엄청난 수준의 강제만이 1930년대에 지정학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었던 산업화의 템포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62] 이 점에 관해 카갈리츠키는 지정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배 기구와 지배 엘리트의 통합 역할을 사회주의적 신념이나 경향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덜루기안이나 보슬렌스키와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사회주의적 신념은 물론 그 자체로서는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부즈갈린은 "변형된(mutated)" 사회주의에 관해 꾸준히 쓴다. 트로츠키의 "타락한 노동자들의 국가"를 대체하려는 게 명백하며 다소 모호한 이 용어는, 스탈린주의가 고조된 시기의 총동원 체제 내에서도 부즈갈린의 눈이 포스트 자본주의의 '싹'을 알아봤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부즈갈린은 오해를 막기 위한 경고도 함께 보

61 Kagarlitsky 2006, pp.863~94.
62 Kagarlitsky 2006, pp.788~830.

www.kci.go.kr

낸다: 포스트 자본주의를 향한 세계적 변화의 본질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1917년 러시아에서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의 포스트-자본주의적 전환을 위한 **기초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미 한 세기 전 카우츠키는 이 점에 주목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17년에 영구적이며 전지구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어떠한 가능성도 거부하면서, 부즈갈린은 볼셰비키들이 무대에 너무 일찍 나왔음을, 그리고 볼셰비즘의 테르미도르적 (자기) 파괴는 '스탈린주의적 범죄'(이것도 맞기는 했다) 이상으로, 역사적 불가피성의 문제라고 주장한다.[63] 이 논리를 따르면 1990년대의 시장 전환과 2000년대 이후의 관료적 통합 역시 불가피해 보이기는 한다. 이 논리는 부즈갈린이 2014년의 서방 동맹(the Western Alliance)과의 대립 이후의 상황에서도 (러시아가-옮긴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케인즈주의적 태도를 따라 나갈 것이란 희망을 표현하며 러시아의 현재 정치적 체제를 향해 보다 '건설적'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64]

6. 초국가주의적(Super-ètatiste) 사회?

볼셰비키가 포스트 자본주의적 미래로 진입하려 한 시도의 역사적 미숙성에 관한 논점은 알렉산더 타라소프가 더 발전시킨다. 소비에트의 과거에 대한 그의 시각은 그러나 부즈갈린과 한 가지 점에서 중요하게 다르다. 타라소프는 소비에트 시절의 현실에서 사회주의나 포스트 자본주의를 시사하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타라소프가 보기에

63 Buzgalin and Kolganov 2010, pp.15~50.

64 부즈갈린은 러시아가 국가와 민간의 사업에 의한 프로그램의 실행에 관해서 더 강한 국가 수준의 전략적 계획과 국가적 통제 요소를 갖추며 '더 중국 같아' 지기를 바라는 듯하다. Buzgalin, 2019.

www.kci.go.kr

볼셰비키 혁명은 객관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공장 생산의 시기와 맞물렸고, 공장의 프롤레타리아들은 1789년부터 1794년 파리의 혁명적 쁘띠 부르주아들과 장인들을 대체했다. 축적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포스트 산업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적 전제 조건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혁명은 주관적인 사회주의적 개념 구조(framework)를 채택했다. 이는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고, 산업화를 따라잡을 주된 세력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부르주아지를 볼셰비키들이 대체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의 사회주의 추구는 혁명적 독재 통제 하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형태를 허락해야 했던 1921년에 이미 비틀거렸다. 1927년부터 1934년에 혁명적 독재는 그 자신을 테르미도르적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이 테르미도르적 독재는 타라소프에 의하면 러시아의 특정한 지정학적 조건(냉전과 관계된 자원의 국가적 동원)으로 인해 드물게 오랫동안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러시아의 테르미도르는 뒤늦게, 약 1970년대 후반에 자신의 짝패 즉 1795년~1799년 프랑스의 **총재정부***le Directoire*를 만나게 된다.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도둑정치. 권력자가 막대한 부를 독점하는 체제－옮긴이)적 브레즈네프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지역관료 패거리 증가를 배경으로 점차 약해진 것이다. 이 **러시아식 총재정부***le Directoire à la russe*의 약화는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 연방이 지방의 관료 집단에 의해 조각조각 찢어졌을 때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1993년 10월의 정치적 위기에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던 옐친 체제의 승리는 보나파르트주의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움직임의 신호였고, 이는 2000년 이래로 푸틴의 통치 하에서 더 강화되었다.[65]

---

65 Tarasov 1996. Tarasov 1994~1995.

www.kci.go.kr

더 중요한 것은 타라소프가 포스트 테르미도르적 소비에트 경험에서 사회주의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를 거부하면서도 '국가 자본주의' 진영에 충성스러운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의 해결책은 소비에트 타입의 시스템을 (대부분 주변부 지역에서) 세계체제적 핵심의 고전적 시장 자본주의와 공존하지만 그것으로 환원하는 건 불가능한, '산업 사회의 특별한 경우'로서 이론화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상황은 고대 지중해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노예 소유 사회, 또는 말하자면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가, 국가의 관료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며 땅 또는 노예의 소유자이기도 했던, 봉록제적인(prebendial) 국가들과 공존하던 것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다. 후자는 사실 마르크스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고 부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체쉬코프나 보슬렌스키, 또는 틸레와 다르게 타라소프는 소비에트적 경험들을 '국가 봉건제'의 근대적 부활로 축소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은 타라소프가 보기에 마르크스적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 마르크스적 용어로 '생산양식'은 생산력의 상태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자본주의적 세계 체제의 산업적 핵심부를 따라잡으려 열중하던 소비에트 타입의 사회는 그것의 적이자 모델이었던 서방세계와 같은 산업적 생산 양식에 속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서 국가가 농노를 소유한 것이 아테네에서 노예 소유가 개인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공존했듯, 소비에트 타입 사회의 축적양식(mode of accumulation)은 시장 기반의 자본주의와 공존했다. 이 축적 양식을 '정상적'이고 사유제적(private)인 자본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타라소프는 이것을 "초국가주의(super-ètatism)"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초국가주의는 국가의 관료가 동질화된 임노동자의 집단에 의해 생산된 잉여를 통제하는 체제로 정의된다. 관료 중 누구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관료는 집단으로서 생산수단을 독점한다.[66] 이 계열의 생각들은 고인이 된 모쉬 레빈(Moshe Levin, 1921~2010)이 '소비에트의 관료적 절대

www.kci.go.kr

주의'라 이름 붙인 것에 대한 사유를 떠올리게 한다. 레빈도 소비에트의 경험에서 관료 국가의 전근대적 전통이 지속되는 것을 알아보았다. 경제 영역의 커다란 부분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유사점이 둘 사이에 있음에도, 두 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은 매우 다르지만, 레빈은 서방으로부터 오는 실제적, 의식적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근대화라는 노골적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전근대의 관료 국가와 소비에트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67]

왜 초국가주의 하의 관료들은 '국가 자본주의자' 집단도 아니고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계급도 전혀 아닌 것일까? 타라소프에 의하면, 초국가주의를 다른 어떤 자본주의 형태와도 구별하는 주된 이유는 초국가주의 하에서 관료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유권은 국가에 달려있고, 이 때 국가는 정치지도자들을 의인화한 것이다. 관료 집단이 대자적 의식을 가진 계층으로 결합되는 순간 초국가주의 체제는 파산을 맞게 된다. 관료들은 그들이 그때까지 관리해 오던 모든 것을 사유화할 것이었다. 이에 더해, 타라소프에 의하면 초국가주의는 그것의 설계에 매우 본질적인 자본주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나 '고전적인classical' 노동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환원할 수 없다.[68] 노동의 공급은 한정적이었는데, 원칙 상 오직 시민들만이 노동자가 될 수 있었고, 출산율은 산업화가 완료된 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고용주로서의 국가가 (생산자들로부터 – 옮긴이) 끌어낸 잉여를 교육, 보건, 연금 공급에 쓰

66 Tarasov 1996.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론의 한 버전에 대한 옹호로 유명해진 소비에트와 러시아의 민족학자이자 역사 이론가인 유리 세메노프(Yuri Semenov, 1929년생)에 대한 타라소프의 비판을 참조. Tarasov 2009.

67 Levin and Elliott 2005, pp.388~90.

68 캘리니코스는 완전 고용의 환경 하에서 국가 기업들이 한정된 임노동자의 공급을 두고 경쟁해야 했던 소비에트 연방에 사실상의 노동시장이 있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 Callinicos 1981.

www.kci.go.kr

며 고갈될 수 있는 노동력을 극도로 잘 돌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복지의 포괄성은 그러므로 초국가주의 특징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고, 이 복지국가의 특징들은 단순히 국유화된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이종(異種) 중 하나로 축소할 수 없다.[69]

타라소프의 도식은 다른 질문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설득력 있어 보이는 답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타라소프는 1917년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볼셰비키가 의존했던 공장 프롤레타리아나 투사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포스트 자본주의적 변형을 이끌 선봉에 서도록 운명지어진 계급인지 묻는다. 그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노예를 소유하는 체제 하의 노예들이나 봉건제의 농노들처럼, 공장 프롤레타리아들 자체는 현존하던 대규모의 기계화된 상품 생산양식 하에서 유일하게 상상 가능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의 전환, 즉 역사적으로 더 진보적인 생산 양식으로의 전환은 현재 생산 양식과 관련이 없는 계급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바로 부르주아들이 봉건적 토지 세계의 관계 외부에 있었던 것처럼). 타라소프는 그러한 계급이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생산물인 지식으로부터 절대 완전히 소외될 수 없으며, 상품화하기보다 공유를 쉽게 허락하는 지식 생산자(지식인)라고 상정한다(지식의 생산자는 그 지식이 상품화되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 타라소프가 그려 보기로, 지식 생산자들은 어느 날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고 상품 생산의 논리에 지식을 복속시키는 (저작권 등의 제한으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이다. 하지만 그 날까지 급진적인 지식인들이 이끄는 공장 프롤레타리아들이나 하층민에 의한 반자본주의적 혁명들은 초국가주의적 체제, 즉 '정상적' 자본주의와 다르지만 같은 생산 양식에 속하는 체제의

69 Tarasov 1996.

www.kci.go.kr

부상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타라소프는 초국가주의적 체제가 어떤 경우에도 생산 과정을 사회화하고, 이것이 잠재적으로 포스트 자본주의적 전환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 시장 자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타라소프는 지금까지 초국가주의적 체제가새로운 비자본주의적, 혹은 포스트 자본주의적 실험보다는 시장 자본주의의 개발(국가가 통제하는 종류의 것이라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하다.[70]

7. 소비에트 타입의 체제들—국가 자본주의보다 **멀리** 가는가?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러시아어권 마르크스주의의 토양에서 소비에트의 발전에 관해 이론화하려는 시도는 여럿이고, 그 시도들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에게 적용 가능한 이론적 인식 틀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대부분의 전문적 역사가들에게는 '**정통파**'적 인식틀도, '**근본적 거부주의자**'적 인식틀도 믿을 만해 보이지 않는다. 소비에트의 생산자들이 생산이나 분배의 과정을 절대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이고, 이는 '사회주의적' 프레임의 적용을 문제적으로 만든다. 스탈린주의적 지배가 시행되기 이전, 192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즉 소비에트의 선거가 아직 경쟁을 허했을 때, 소비에트[71]들에게 정

70 Tarasov 1996. Tarasov 2005~2006.

71 (옮긴이 각주) "소비에트는 러시아 혁명기 노동자, 농민, 병사의 직접민주주의 정치기구이다. 소비에트라는 단어는 현재도 러시아어에서 충고, 조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한국어로는 '평의회'로도 번역됐으나, 보다 간단히 '회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에트는 단순히 회의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대표회의이다. 1905년 혁명에서 처음 등장했으나 진압되어 사라졌고, 1917년 2월 혁명에서 다시 등장했다. 볼셰비키는 소비에트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주장했고, 스스로의 나라를 소비에트공화국으로 불렀다." — 쉴라 피츠패트릭, 고광열 옮김, 『러시아 혁명』, 2017, 72쪽. [옮긴이 각주]

www.kci.go.kr

치적 영향력과 노동자 통제력이 없었다는 것은 질문거리도 아니다.[72] 1920년대 후반 이전의 소비에트 체제를 '사회주의 지향적'으로 특징짓는 것이 대단한 과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 정의를 계속해서 따른다면 '소비에트적 사회주의'를 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에트 타입의 경제 건설을 인류가 '국가-봉건제적' 과거로 퇴보한 것으로 보는 보슬렌스키의 이해 역시 역사적 이론화와 정치적 논쟁화 사이에 자리한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스탈린주의 체제에 의한 비자유 노동의 광범위한 활용 그 자체가 '아시아적 폭정'의 재발이 되지는 않는다. 동시대 미국의 '불법적'(이주나 노동을 위한 허가증이 없는(undocumented)) 이주자들이나 교도소의 노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고전적인' 자본주의적 사회들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부자유한 노동을 사회 내에 갖고 있으며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73] 전후 소비에트 연방의 산업적 관료들은 농업 중심의 왕조적 군주제의 중세적 관료들보다 관료집단의 베버적 모델에 훨씬 더 가깝다.[74]

소비에트 타입 사회의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가까이 간 것은 '**특별한 종류의, 혁명 이후의 비자본주의적 사회**'학파와 '**국가자본주의**' 학파이다. 소비에트의 경험을 이론화함에 있어서 이 두 방향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경제의 특정한 섹터들만이 아니라, 거시 경제적 상황과 경제의 전체에 대한 전반적 통제를 장악한 순간, 국가는 시장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에 들어선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75] 정치적 권력과 생산 시설의 소

72 Ulyanova 2014.

73 Brass 2014.

74 Constas 1961.

75 남미와 동아시아의 개발주의적 관료주의-권위주의 국가의 경우들에 관해서는 O'Donnell 1973; White 1988.

www.kci.go.kr

유권이 합쳐지자, 소비에트 국가는 그것이 아래로부터 전해지는 혁명 후의 요구와 기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포스트 혁명적 엘리트들이 그 권력을 행사한 '대중들'은 국가가 그들의 민족주의적(국가 주권의 유지) 열망과 근대화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했다. 국가의 피고용자로서,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법적 고용주가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의학적으로 치료해 주고, 연금을 주고, 자기들에게 거주 공간을 공급하기를 기대했다. 국가가 그것의 의무를 완수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대규모 시위로, 때때로 폭력적이기까지 한 시위로 이어질 수 있었다.[76] 대중은 또한 정부가 공급하는 복지의 수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올라가리라 기대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들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결정권을 당－국가에게 양도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는 암묵적 기대가 있었다: 당－국가가 수직적 사회이동성을 위한 기제를 제공해주리란 것이 그것이었다. 경제의 총체를 국유화한 것의 대가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었고, 이것은 고전적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적 체제조차 대개 짊어지지 않았던 짐이다(예를 들어, 남한은 가장 기초적인 복지를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개발하기 시작했다).[77]

소비에트 타입 체제의 진화가 주로 계급 분화를 향해 있었다는 것은 특히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관해 '초국가주의' 학파는 유효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에트 타입의 관료제가 즉자적 계급(class-in-itself)이나 대자적 계

76 전형적 예는 1962년의 노보체르카스크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시위일 것이다. 이 시위는 소비에트 정부군에 의한 대규모 학살로 끝났지만 정부가 노동자 한명 당 생산성 표준을 향상시킬 계획을 좌절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Vladimir Kozlov, *Neizcestnyi SSSR: Protivostoyanie Naroda i Vlasti, 1953~1985(The Unknown USSR: the People-versus-AUthorities Confrontation).* Moskva: Olma Press. 2005, pp.330~403.

77 남한과 다른 동아시아의 복지 체제에 관해서는 Lee Ku 2007.

www.kci.go.kr

급(class-for-itself)보다는 형성 중에 있던 계급(class-in-the-making)이었다는 것이 기억되어야 한다. 관료들은 국유화된 경제를 운영하였지만, 위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듯, 서로 대립하고 모순되는 혁명 후의 요구들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de facto 집단적 통제를 **법률 상의**de jure 개인적 소유권으로 재빠르게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고속의 산업화와 대중적 복지는 핵심적인 요구의 일부였지만 전자가 높은 우선순위에 놓이고 내부 자원의 동원을 통해 실현되는 한, 후자는 미뤄져야 했다. 있을 수 있던 대중적 불만의 폭발은[78] 경찰 국가적 조치에 의해 불가능해져야 했다. 동시에, 스탈린은 자원의 총동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관료가 언제나 임박한 위협 아래에 있게 했다. 전쟁이나 지정학적 경쟁(냉전)의 조건 속에서 빠른 속도의, 동원에 의한 산업화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계급 분화가 심화되는 것을 미룬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타라소프가 '관료적 부르주아지'라고 적절히 이름 붙인, 하나의 계급으로 관료가 통합되는 일은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과 함께 일어났다. 소비에트 몰락의 이유 중의 하는 바로 관료들의 **실질적인** 국가 자산의 사유화이었다. 그런 후 이 몰락은 관료들에게 **법적인**de jure 사유화를 허락했다.

8. 결론을 대신하여: 형성 중인(in-the-making) 자본주의와 계급?

소비에트의 관료가 형성중인 계급이라면, 되돌아보았을 때 소비에트 타입의 산업주의를 가장 잘 특징짓는 것은 아마 형성 중이던 자본주

78 소비에트 연방의 노동자들의 불만에 관해서는 Ziegler 1983. 더 많은 정보는 Kozlov 2005에서 찾을 수 있다.

www.kci.go.kr

의(capitalism-in-the-making)일 것이다. 소비에트 타입의 시스템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의 자본주의적 체제에 (다시) 합류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은 자명하다. 비록 자신감 넘치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오늘날의 러시아에서 선명히 보이듯, 이상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합류를, 그들이 원하던 그들만의 방식대로 하고 싶었을지라도 그렇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산업주의로의 지름길은 서로 다른 방법들의 집합을 드러내는데, 이 중 자본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일부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정말 임금을 받았다(그들의 잉여가치는 추출되었다—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극도로 낮은 임금을 받았다).[79] 그렇지만 그들은 초보 수준의 일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잉여는 적절히 추출되었고 재투자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권력과 생산 설비의 소유권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재투자는 이윤의 논리**와** 정치적 우선순위의 논리를 **모두** 따랐다. 몇몇 공장들은 위에서 언급했듯 손실이 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국제적으로, 소비에트 국가는 '정통적' 자본주의적 경쟁자들에 대항하여 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 경쟁에 열중이었다. 그렇지만 소비에트 국가는 교환의 고객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세계체제의 중심부에 있는 자신의 경쟁자보다 훨씬 더 적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80] 사실, 개발도상국이 더 가난하고 기술적으로 덜 진보한 소비에트 연방을 후원자로 고른 것의 이유는 바로 부의 유출 없이(이윤 유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부의 유출은 대개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국가가 후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 국가에 동반하는 외부의 자본이 자원 채취나 노동집약적 생산에 직접 투자하며 후원하는

79 1950년대 초반 소비에트의 실질 임금은 평균적으로 1928년보다 정말 더 낮았다. Chapman 1954.

80 소비에트와 쿠바의 관계에 관해서는 Packenham 1986 pp.135~165를 보아라. 소비에트가 북한에 원조한 양에 관해서, 특히 1950년대의 원조에 관해서는 Armstrong 2005.

www.kci.go.kr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었다.[81]

한 마디로, 소비에트 타입의 산업주의는 변화 중에 있는 것이었고, 일상화된 비상사태 하에서만 가능한 자본주의적, 군사적, 그리고 행정적 방법들을 모두 절충적으로 합친 혼합물이었다. 1920년대 이후 소비에트의 역사는 전쟁(1930년대), 즉 제 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 대한 빠른 속도의 준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냉전과 함께 소비에트의 역사도 끝이 났다. 소비에트 타입의 사회를 정의하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적 수명이다. 지배 관료는 기본적 산업화가 끝나고 국가가 아주 조금의 안정에라도 도달하는 순간 바로 산업적 자산에 관해 자신들의 소유권을 정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후 비상사태가 끝나고 관료는 마침내 자의식을 가진 계급으로 성숙하게 된다. 이후 관료들은 자신이 이끌어 왔던 산업화 드라이브의 과실에 대한 **사실 상의***de facto* 통제를 합법화한다. 타라소프가 주목하듯, 다른 계급들의 완전한 성숙은 더 오래 걸린다. 그가 쓴 것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사회에서는 관료적-부르주아지가 유일하게 완전히 성장한 계급이다. 소비에트의 산업화와 소비에트 붕괴 이후의 '고전적인' 시장의 도입에 동반된 모든 사회적 지위의 변화 후에도 사회의 나머지 계층들은 여전히 유동적이다.[82]

소비에트식 개발주의 방법의 절충주의(eclecticism)는 포스트-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소비에트 시기에 관한 담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푸틴의 국가가 많은 노력을 들여 강조하는 소비에트적 근대화의 위대함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뻗어 나온 것만은 아니다. 혁명 후의 사회는 확실히 고속의 근대화에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81 이 세계체제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뤄진 부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의 이동 패턴에 관한 분석에 관해서는 Chase-Dunn 1975.

82 Tarasov 2008.

www.kci.go.kr

(예를 들어 젠더 평등을 위한 아주 강도 높은 조치) 아주 빠르게 뛰어들었다.[83] 그럼에도 강조되는 것은 아주 선택적이어서 푸틴 시대의 공식적 담론은 스탈린주의적 지배의 억압성을 경시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동시에 '동양적 폭정'을 언급하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적이라는 비난의 폭풍을 전지구적 아카데미아로부터 받는 요즘에조차,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미디어는 '실재했던 사회주의'와 '동양의 총체적 노예제'로 후퇴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며, 여전히 종종 보슬렌스키와 유사한 시각을 퍼뜨린다.[84] 소비에트의 제도들을 '아시아적 봉건제의 재부상'으로 정의하는 것은 전문적 역사학보다 정치적 논쟁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비유는 또한 어느 정도 정당화되기도 한다. 타라소프가 주장하듯, 소비에트 타입의 시스템은, 어찌 되었든 대규모의 땅과 노예를 소유하는 고대적 특징이 있는 전근대 국가에 이어 세계사에서 생산력의 철저한 국유화를 이루려던 겨우 두 번째 시도였다.

그러나, 보슬렌스키와 유사한 청사진에 대해 수용적인 자유주의자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소수이다. 2018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4%만이 "서구적 정치 체제"(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가장 잘 맞는다고 말했다. 다수(53%)는 과거의 소비에트 시스템(23%)이나 여기에 민주주의의 몇몇 요소를 더한(25%) 것을 선호했다.[85] 달리 말해, 대도시 중산층 바깥의 다수 러시아인들은 현재 체제나 사회적 온정주의의 소비에트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이다. 덧붙여, 68%는 소비에트의 멸망을 유감스러워 했으며 40%는 스탈린에 대해 존경과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오직 12%만이 스탈린을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두려워했다).[86] 소비에트

83 Goldman 1993.
84 예로는 Grinkevich 2019.
85 Levada Centre 2018.
86 Levada Centre 2018.

www.kci.go.kr

노스탤지어는 복잡한 현상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소비에트 멸망 직후 개인적으로 빈곤해진 경험에 기반해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국가 역사의 승리주의적 내러티브를 홍보하려는 푸틴 정부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87] 어떤 경우라도, 국가의 소비에트적 경제적, 사회적 통제에 끌리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있는 상황에서(인구의 52%로, 일종의 계획 경제를 호의적으로 보는 이들) 이 노스탤지어는 소비에트 시절의 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성립 도움이 되지 않는다.[88] 소비에트 연방과 위성국가를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정통파'의 견해도 제대로 훈련된 마르크스주의적 학자에게는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국가에서 향수를 느끼는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이것이 널리 퍼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에트 사회－경제 형태 규정의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적 견해는 과거의 미화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해독제로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비에트 시대의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타입의 개발주의적 체제와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를 혼동하는 것은 위험한 경향이다. 이는 혁명적 상상력의 너비를 좁히고, 진짜로 존재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이들이 내일의 더 좋은 사회를 상상할 때 주로 지난날의, 많은 결함이 있던 '실재했던 사회주의'를 따라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에트 과거를 비판적 마르크스주의로 이해하려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시도는 중요하며, 이 시도는 바깥 세계에 더 잘 알려져야 마땅하다.

87 Kalinina and I Menke 2016.

88 Filatova 2016.

www.kci.go.kr

: : 참고문헌

Armstrong, Charles K. 2005, "Fraternal Socialism': The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1953～1956', *Cold War History,* 5,2:161~87.

Arthur, Chris 1968, 'From our Readers', *International Socialism,* 33:15~16.

Bahro, Rudolf 1978,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New York: Verso.

Barker, Colin 1978, 'The State as Capital', *International Socialism,* 2.1: 16~42.

Bozovic, Marijeta 2019, 'The Voices of Keti Chukhrov: Radical Poetics after the Soviet Union', *Modern Language Quarterly,* 80, 4: 453~478.

Brass, Tom 2014, 'Modern Capitalism and Unfree Labor: The Unsaying of Marxism', *Science and Society,* 78,3: 288~311.

Budraitskis, Ilya 2017, *Dissidenty sredi Dissidentov* (Dissidents among the Dissidents), Moscow: Svobodnoe Marksistskoe Izdatel'stvo.

Bukharin, Nikolai 1929 [1917],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London: Martin Lawrence.

Burawoy, Michael and Lukacs, János 1985, 'Mythologies of Work: A Comparison of Firms in State Socialism and Advanced Capit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6: 723~37.

Buzgalin, Alexander and Kolganov, Andrei 2010, *Desyat' Mifov ob SSSR* (Ten Myths about the USSR), Moscow: Yauza.

Buzgalin, Alexnader 2019, 'Gospodstvuyushchiy Sloi ne Gotov Delitsya Vlastyu, Ego Nado Podtolknut' (The Ruling Stratum is Not Prepared to Share Power, It Has to be Pushed [Along this Way]), *Business-Online,* 19 October. Available at: https://www.business-gazeta.ru/article/424590 (accessed 19 October 2020).

Callinicos, Alex 1981, 'Wage Labour and State Capitalism: a reply to Peter Binns and Mike Haynes' *International Socialism,* 2.12: 97~118.

Camfield, David 2020, 'From Revolution to Modernising Counter-Revolution in Russia, 1917-28', *Historical Materialism,* 28, 2, 2020: 107~39.

Chapman, Janet G. 1954,'Real Wages in the Soviet Union, 1928-1952',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2: 134~56.

Chase-Dunn, Christopher 1975,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Economic Dependence on Development and Inequality: A Cross-Nation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6: 720~38.

Chattopadhyay, Paresh 2004, 'The Soviet Question and Marx Revisited: A Reply to Mike

www.kci.go.kr

Haynes', *Historical Materialism,* 12, 2, 2004: 111~128.
Chebankova, Elena 2014, 'Contemporary Russian Liberalism', *Post-Soviet Affairs,* 30, 5, 2014: 341~369.
Chebankova, Elena 2017, 'Ideas, Ideology and Intellectuals in Search of Russia's Political Future', *Daedalus,* 146,2:.76~88.
Cheshkov, Marat 1994, 'Sotsiologiya Razvitiya i Perspektivy Marksistskoi Teorii (Po Khodu Odnoi Diskussiii)' (Sociology of Development and the Perspectives of Marxist Theory: in Connection with One Discussion), *Vostok,* 5: 178~184.
Cliff, Tony 1974, *State Capitalism in Russia,* London: Pluto Press.
Constas. Helen 1961, 'The U.S.S.R.-From Charismatic Sect to Bureaucratic Socie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3: 282~298.
Dalberg, Dirk Mathias 2016, 'From Class-society to a Democracy in Permanence. Petr Uhl's "Program of Social Self-management"', *Studia Politica Slovaca,* 2: 5~23.
Desai, Radhika, Freeman, Alan and Kagarlitsky, Boris 2016, 'The Conflict in Ukraine and Contemporary Imperialism', *International Critical Thought,* 6,4: 489~512.
Deutscher, Isaac 1952, 'Socialist Competition', *Foreign Affairs,* 30,3: 376~390.
Dunayevskaya, Raya 1992, *The Marxist-Humanist Theory of State-Capitalism,* Chicago: News and Letters Committee.
Filatova, Irina 2016, 'Sotsiolog Levada Tsentra: 'Rossiyane Okazalis' ne Gotovy k Rynochnoi Ekonomike' (A Levada Centre Sociologist: 'Russians Turned out to be Unprepared for the Market Economy') *DW,* 18 February. Available at: https://p.dw.com/p/1HxDG (Accessed 25 November 2019).
Filtzer, Donald 1996, 'Labor Discipline, the Use of Work Time, and the Decline of the Soviet System, 1928-1991'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50, 1996: 9~28.
Goldman, Wendy 1993, *Women, the State an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inkevich, Vladislav 2019, 'Zikkuraty Sotsializma. Kak Sledovanie Marksistskomu Ucheniyu Vozrozhdalo Instituty Vostochnykh Despotiy' (Ziggurats of Socialism. How Following the Marxist Teachings Brought a Rebirth of the Oriental Despotic Institutes), *Expert,* 42: 29~31.
Haimson, Leopold H. et al. (eds.) 1987, *The Making of Three Russian Revolutiona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aszti, Miklos 1977, *Worker in a Worker's State.* London: Penguin Books.
Harman, Chris 1969, 'The Inconsistencies of Ernest Mandel' *International Socialism,* 41:

www.kci.go.kr

36~41.
Harman, Chris 1990, 'From Trotsky to State Capit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2.47. Available at: https://www.marxists.org/archive/harman/1990/xx/trotstatecap.html(Accessed 18 February 2021).
Harman, Chris 1991, 'The state and capitalism today', *International Socialism* 2, 51: 3~54.
Haynes, Mike 2002, 'Marxism and the Russian Question in the Wake of the Soviet Collapse', *Historical Materialism,* 10, 4: 317~362.
Holubec, Stanislav 2015, 'The Radical Left of the New EU: Between Communist Nostalgia and Postmodern Radic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29, 3: 126~134.
Huet, Valérie 2007, 'Napoleon I: a New Augustus?', in, *Roman Presences: Receptions of Rome in European Culture, 1789-1945,* edited by Catherine Edwa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garlitsky, Boris. 1988. *The Thinking Reed: Intellectuals and the Soviet State, 1917 to the Present,* NY: Verso
Kagarlitsky, Boris *2006, Marksizm: Ne Rekomendovano dlya Obucheniya* (Marxism: not Recommended for Studying), Moscow: EKSMO.
Kalinina, Ekaterina and Menke, Manuel 2016, 'Negotiating the Past in Hyperconnected Memory Cultures: Post-Soviet Nostalgia and National Identity in Russian Online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Politics* 12, 1, 2016: 59~74.
Kautsky, Karl 1919, *Terrorism and Communism: A Contribution to the Natural History of Revolution,* London: The National Labour Press.
Kidron, Michael 1965, 'International Capit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20. Available at: www.marxists.org/archive/kidron/works/1965/xx/intercap.htm (Accessed 18 February 2021)
Kidron, Michael, 1970, *Western Capitalism since the War,* London: Pelican Books.
Kondratieva, Tatiana *1993, Bol'sheviki-Yakobintsy i Prizrak Termidora* (The Jacobin Bolsheviks and the Ghost of Thermidor), Moscow: Ipol.
Kosolapov, Richard 2014, 'Optimizatsiya Obshchestvennoi Sistemy' (The Optimization of the Social System), *Filosofiya i Obshchestvo,* 3: 79~103.
Kozlov, Vladimir 2005, *Neizvestnyi SSSR : Protivostoyanie Naroda i Vlasti, 1953-1985* (The Unknown USSR: the People-versus-Authorities Confrontation), Moskva: Olma Press.
Kyloušek, Jakub and Pink, Michal 2007, 'Electoral support for the Communist Party of

www.kci.go.kr

Bohemia and Moravia in parliamentary elections in the Czech Republic after 1990', *European Electoral Studies,* 2,2: 149~163.

Lee, Yih-Jiunn and Ku, Yeun-wen 2007, 'East Asian Welfare Regimes: Testing the Hypothesis of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2: 197~212.

Levada Centre (ed.) 2018, *Russian Public Opinion 2018.* Available at: https://www.levada.ru/cp/wp-content/uploads/2019/07/2018-Eng.pdf p.27(Accessed 25 November 2019).

Levin, Moshe and Elliott, Gregory 2005, *The Soviet Century,* London: Verso.

Linden, Marcel van der 2007, *Western Marxism and the Soviet Union: A Survey of Critical Theories and Debates Since 1917.* Leiden: Brill.

Malinova, Olga 2009. 'Russian Political Discourse in the 1990s: Crisis of Identity and Conflicting Pluralism of Ideas' in *Identities and Politics During the Putin Presidency. The Discursive Foundations of Russia's Stability,* edited by Philipp Casula and Jeronim Perovic. Stuttgart: Ibidem-Verlag.

Mandel, David (ed.) 2017, *Democracy, Plan and Market: Yakov Kronrod's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Stuttgart: Ibidem Press

Meerson Aksenov, Michael and Shragin, Boris (eds.) 1977. *Th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Thought of Russian "Samizdat"-An Anthology.* Belmont, Mass.: Norland.

Mikhailin, Valeriy 2013, 'Levye Zashli v Tupik' (The Leftists Ended in a Cul-de-Sac) *Expert Online,* 8 November. Available at: https://expert.ru/2013/11/8/levyie-idut-napravo/(accessed 19 October 2020);

Morton, Henry W. 1980, 'Who Gets What, When and How? Housing in the Soviet Union', *Soviet Studies,* 32, 2: 235~259.

Naumova, Tatiana 2008, *Nauchnaya Intelligentsiya v Novoi Rossii* (Academic Intellectuals in New Russia). Moscow: Rossiyskaya Akademiya Nauk, Institut Filosofii.

Nove, Alec 1977, 'A Note on Trotsky and the 'Left Opposition', 1929-31', *Soviet Studies,* 29, 4, 1977: 576~589.

O'Donnell, Guillermo A.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Berkeley, Cal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Oittinen, Vesa 2010, 'Marx in Russia', *Socialism and Democracy,* 24, 3: 187~192.

Packenham, Robert A. 1986, 'Cuba and the USSR since 1959: What Kind of Dependency?' in *Cuban Communism,* edited by Irwing Louis Horowitz, Oxford: Transaction Books.

www.kci.go.kr

Riguera, Eric de la 2015,. 'Gáspar Miklós Tamás: This is post-fascism' *Arbetet.* September 26. Available at: https://arbetet.se/2015/09/26/gaspar-miklos-tamas-this-is-post-fascism/ (accessed 9 October, 2020).

Rogovin, Vadim 1990, 'Trotsky o Sotsial'nykh Otnosheniyakh v SSSR' (Trotsky on the Social Relationship in the USSR),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ya,* 5: 23~40.

Sadykov, Fagim 1968, *Edinstvo Naroda I Protivorechiya Sotsializma* (The Unity of the People and the Contradictions of Socialism), Stavropol': Knizhnoe Izdatel'stvo.

Sherlock, Thomas 2016, 'Russian Politics and the Soviet Past: Reassessing Stalin and Stalinism under Vladimir Puti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9,1: 45~59.

Shkredov, Vladimir 1973, *Metod Issledovaniya Sobstvennosti v Kapitale Marksa* (The Method of Researching Property Relationship in Das Kapital by Marx). Moscow: Izdatel'stvo Moskovskogo Universiteta.

Smith, Andrew M, 2017, *Which East is Red? The Maoist Presence in the Soviet Union and Soviet Bloc Europe 1956-1980.* Thesis, Georgia State University,. Available at: https://scholarworks.gsu.edu/cgi/viewcontent.cgi?article=1116&context=history_theses (accessed 9 October, 2020).

Sokolov, Andrei 2003, 'Forced Labor in Society Industry: The End of the 1930s to the Mid-1950s (An Overview)' in, *The Economics of Forced Labor: The Soviet Gulag,* edited by Paul R. Gregory and Valery Lazarev,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Solovyev, Avenir 1998, 'Rossiya v Dvadtsatom Veke: Chto Sdelano?' (Russia in the Twentieth Century: What Has Been Done?) Available at: http://libelli.ru/magazine/98_3/russia.htm (accessed 22 November 2019).

Solovyev, Avenir 2010, *Eshchyo Raz ob Obshchestvennom Stroe SSSR* (Once Again about the Social System of the USSR), Moscow: Levyi Povorot.

Tarasov, Alexander 1994-1995, 'Natsional'nyi Revolyutsionnyi Protsess: Vnutrennie Zakonomernosti i Etapy' (National Revolutionary Process: Immanent Laws and Stages). Available at: http://screen.ru/Tarasov/nationalpro.html (accessed 22 November 2019).

Tarasov, Alexander 1996, 'Super-etatism and Socialism: Towards a Statement of the Problem'. Available at: http://screen.ru/Tarasov/etatism_eng.html (accessed 21 November 2019).

Tarasov, Alexander 2005-2006, 'Mirovaya Revolyutsiya-2' (The World Revolution-2), Available at: http://saint-juste.narod.ru/WWII.html (Accessed 22 November 2019).

www.kci.go.kr

Tarasov, Alexander 2007, 'Levye v Rossii Nakhodyatsya na Dokruzhkovoi Stadii' (The Leftists in Russia Find Themselves on the Pre-Circle Stage). Available at: https://scepsis.net/library/id_1759.html (accessed 19 October 2020).

Tarasov, Alexander 2008, "Vtoroe Izdanie' Kapitalizma v Rossii' (The 'Second Edition' of Capitalism in Russia). Available at: https://scepsis.net/library/id_2973.html (accessed 25 November 2019).

Tarasov, Alexander 2009, 'Opyat' Tupik' (Again a Dead End), Available at: https://scepsis.net/library/id_2756.html (Accessed 22 November 2019).

Thomas, Martin 2006, 'Three Traditions? Marxism and the USSR', *Historical Materialism,* 14,3: 207-43.

Thomas, Martin 2018, 'Four Missing Years. A Review of *Trotsky and the Problem of Soviet Bureaucracy* by Thomas M. Twiss', *Historical Materialism,* 26,4: 165-79.

Tille, Anatoiy 2005, *Sovetskiy Sotsialisticheskiy Feodalizm, 1917-1990* (Soviet Socialist Feudalism, 1917-1990), Moscow: Probel-2000.

Trotsky, Leon 1937, *The Revolution Betrayed; What Is the Soviet Union and Where Is It Going?* NY: Doubleday, Doran, and Company, Inc.

Twiss, Thomas 2014, *Trotsky and the Problem of Soviet Bureaucracy,* Leiden: Brill.

Volynets, Alexei 2013. 'Sovetskie Hunveibiny: 'SSSR nuzhen Mao Tszedun!" (The Soviet Hongweibings: 'USSR Needs a Mao Zedong1'" Published at https://rusplt.ru/, 10 July.

Ulyanova, Svetlana 2014, 'Deputaty Gorodskikh Sovetov i ikh Izbirateli: Istoricheskiy Opyt Lensoveta 1920-kh Godov' (Deputies of City Soviets and Their Electors: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Leningrad Soviet of the 1920s), *Vestnik Yaroslav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Seriya Gumanitarnye Nauki,* 27,1: 18~22.

Voslensky, Mikhail 1980, *Nomenklatura-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Molden.

Voslensky, Mikhail 1984, "Klass Gospodstvuyushchiy i Obrechennyi" (A Dominant and Doomed Class),. *Posev,* 11: 28~33.

Voslensky, Mikhail 1984a. *Nomenklatura: the Soviet Ruling Class,* NY: Doubleday, 1984

Voslensky, Mikhail 1984b. *Nomenklatura : Anatomy of the Soviet Ruling Class,* London: The Bodley Head.

Voslensky, Mikhail 1990, *Nomenklatura: Gospodstvuyushchiy Klass Sovetskogo Soyuza* (Nomenklatura: The Ruling Class of the Soviet Union), 2nd Edition, London: Overseas Publications Interchange Ltd.

Voslensky, Mikhail 1991, *Nomenklatura-gospodstvujušshchiy klass Sovetskogo Soyuza*

www.kci.go.kr

(*Nomenklatura*-the Ruling Class of the Soviet Union), Moscow: Oktyabr'.

Wallerstein, Immanuel 2001, *Analiz Mirovykh Sistem i Situatsiya v Sovremennom Mire* (The World-System Analysis and the Current World Situation), St.Petersburg: Universitetskaya Kniga.

Wallerstein, Immanuel and Derluguian, Georgi 2012, 'Istoriya Odnogo Padeniya' (The History of One Fall), *Ekspert,* 1, January 1. Available at: https://expert.ru/expert/2012/01/istoriya-odnogo-padeniya/ and http://left.by/archives/951 (Accessed 22 November 2019).

White, Gordon (ed.) 1988, *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London: Palgrave Macmillan.

White, Stephen 2010, 'Soviet nostalgia and Russian politic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1: 1~9.

Wilhelm, John Howard 1985, 'The Soviet Union Has an Administered, Not a Planned, Economy', *Soviet Studies,* 37,1: 118~30.

Yavlinsky, Grigory 2018, 'Protiv Stalinizma i Naslediya 90-kh' (Against Stalinism and 1990s Legacy) *RIA Novosti,* 8 February. Available at: https://ria.ru/20180207/1514151707.html (Accessed 22 November 2019).

Zhuravleva Galina et. al, 2014, *Ekonomicheskaya Teoriya. Makroekonomika 1,2* (The Economic Theory. Macroeconomics 1,2). Moscow: Dashkov and Co.

Ziegler, Charles E. 1983, 'Worker Participation and Worker Discontent in the Soviet Un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8,2: 235~253

www.kci.go.kr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부상한 러시아어권 마르크스주의, 또는 신마르크스주의 학파의, 소비에트 경험에 관한 서로 다른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을 (다른 과거 동구권의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다루고 있다. 고전적인 소비에트 식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비판적이며, 포스트－소비에트적 마르크스주의에 집중하면, 이 이론들이 '근본적 거부주의' 혹은 '테르미도르적'인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이 글은 보일 것이다. 전자는 카우츠키를 비롯해 초기에 레닌을 반대한 이들의 중대한 비판과 같은 선상에서 1917년 10월 혁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후자는 혁명이 적어도 사회주의 지향적이기는 했다고 정의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종류의 '국가자본주의'론, 그리고 스탈린주의적 사회들이 본질적으로 정통적 자본주의와는 다른 포스트 혁명적 산업주의의 특별한 종류라고 정의한 여러 이론가들로 이분화 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비판적 포스트－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소비에트 타입의 통치 체제가 점점 심화된 계급 분화를 향해 진화해 갔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소비에트 타입의 관료는 즉자적 계급이나 대자적 계급이라기보다 형성 중인 계급(class-in-the-making)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이 논지는 소비에트 타입의 산업주의와 정통 자본주의 사이의 유사점보다는 차이를 우선에 두었던 이론가들의 작업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핵심어: 마르크스주의,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소비에트 문제, 관료제, 국가자본주의

www.kci.go.kr

: : Summary

‘The Soviet Problem’ in Post-Soviet Russian Marxism, or the Afterlife of the USSR

Vladimir Tikhonov

Translation: Saerom Bae

The present article is dealing with different Marxist theories on the Soviet experience, which emerged in post-Soviet Russophone Marxist or neo-Marxist scholarship (concurrently with some reference to Marxist traditions in other former Eastern bloc countries).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se theories — if we leave the remaining ‘Marxist-Leninists’ of the classical Soviet type aside and focus on critical, post-Soviet Marxism — may be classified into either ‘fundamentally rejectionist’ or ‘Thermidorian.’ The former, in line with the seminal criticisms by K.Kautsky and other early opponents of Lenin, reject the socialist nature of October 1917 Revolution outright. The latter mostly define the Revolution as at least socialist-oriented, but further bifurcate into different varieties of ‘state capitalism’ thesis and a number of theorists defining the Stalinist societies as special varieties of post-revolutionary industrialism essentially different from orthodox capitalism. Most critical post-Soviet Marxists agree, however, that the main vector of Soviet-type regimes’ evolution indeed pointed towards increased class stratification.

However, it has to be remembered that Soviet-type bureaucracy was a class-in-the-making rather than a class-in-itself or a class-for-itself, and this point is further elaborated in the works of these theorists who prioritize the differences rather than

www.kci.go.kr

similarities between the Soviet-type industrialism and orthodox capitalism.

keywords : Marxism, post-Soviet, Russia, Soviet problem, Bureaucracy, state capitalism

www.kci.go.kr